

“말은 진실하게 행동은 떳떳하게”

티베트 불교학 권위자
로버트 쉘먼 교수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불교학자로서, 서구 사회에 티베트 불교와 불교사상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로버트 쉘먼 교수. 쉘먼 교수는 현재 미국 콜롬비아대학 종교학과에서 제이 쉘카와 석좌교수로 티베트 불교를 가르치고 있으며 매우 리처드 기어가 설립한 뉴욕의 티베트 하우스 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또한 그 자신이 티베트 승가에 출가하여 직접 수행했던 전력과 가지고 있다. '인도 문명에서의 종교'를 주제로 한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인도 뉴델리를 방문한 로버트 쉘먼 교수를 지난 해 12월 20일 인디아 인터내셔널 센터에서 만났다.

▲어제 교수님께서 강연에서 물질주의와 자본주의의 폐해, 폭력의 사용 등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까. 21세기의 사회 전반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전반적으로 매우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수백년간 사회를 지배해 왔던 제국주의, 물질주의 등은 매우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요. 환경 문제, 전쟁과 폭력 등은 이를 잘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 질서는 결국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부의 자기 모순이 너무 극심하기에, 필연적으로 그 내부에서 개인들의 충동을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제국주의를 비롯한 파괴적인 체제들은 몰려갈 것이고, 보다 인간적이고 서로를 존중할 줄 아는 세계가 도래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간 스스로의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당연합니다. 최근 폴란드의 메니 밀니치가 쓴 책을 읽고 크게 공감했습니다. 책의 요지는 '진리 속에 살자'는 지극히 단순한 이야기였지요. 이 개념은 간단히 말하면 사티아그라하(진리추구)와도 비슷한 것입니다. 사회 전반의 변화는 물론 체제의 변화이기도 하지만, 이는 또한 개개인의 변화에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소위 말하는 '혁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노력입니다.

▲그것이 교수님께서 책에 쓰신 '자기 안의 혁명'이라는 개념과 통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하고자 한 '자기 안의 혁명'이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사회혁명 등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지요.

▲'진리 속에 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당신의 진짜 마음을 이야기하십시오. 매우 솔직해져야 합니다. 만약 임금이 벌거벗었다면 벌거벗었다고 얘기를 해야지요. 할 말이 있다면, 그것이 진실에 입각한 것이라면, 그 말을 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회적, 정치적 이슈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기본적으로는 투표에 참여해서 바른 의사를 밝히는 일

보십니까? 가까운 미래에 해결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 상황은 별로 좋지 않지만, 중국은 티베트 문화 말살정책과 식민주의를 포기하고 모든 티베트인들이 원하는대로 자유티베트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티베트를 유럽에서 스위스처럼 일종의 비무장 중립지대, 또는 완중지대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티베트 문제는 말지 않은 장래에 평화적인 해결을 보리라 기대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달라이 라마께서도 매우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한국 불자들도 달라이 라마를 믿고 싶어합니다. 몇 년 전 달라이 라마 성하의 방문이 무산된 적도 있었지요.

그랬요. 그 때, 많이 실망하고 놀라기도 했었습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한국 정부의 책임이라고는 생각

불자들에게도 친근한 약사어래블의 뜻을 널리 펼치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소장하고 있는 뉴욕의 티베트 하우스는 티베트 의학과 티베트의 약품을 서구 사회에 널리 알리고 보급하는 일에 앞장설 것입니다. 이것은 티베트를 경제적으로 돕는 일이 될 뿐만 아니라, 각종 오염과 화학약품으로 인한 질병이 만연한 서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도 될 것입니다.

▲교수님의 새해 목표가 완만하게 성취되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한국 불자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인도 뉴델리= 이지은 통신원



세계적인 불교학자이자 티베트 불교수행자인 로버트 쉘먼 교수는 "21세기의 인류와 불교의 미래는 매우 희망적이다"고 말했다.

내부적 모순에 세계 체제 붕괴 서로 존중할 줄 아는 시대 도래 솔직하고 적극적인 삶 살아가야

부터 시작되는 것이지요. 무엇인가 진리를 거스르는 일이 행해지고 있다면 과감하게 일어나서 그것은 옳지 못하다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환경문제, 빈곤 문제, 전쟁 등 우리는 참으로 해야 할 말도, 해야 할 일도 많은 세상에 살고 있지요.

▲요즘을 한국에서는 많은 불자들이 '불교 환경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진리 속에 사는 하나의 구체적인 방법이 되겠군요.

한국의 불자들이 환경운동에 동참하고 있다는 기쁩니다. 이 세상은 모두 부처님의 '정토'입니다. 이것은 정신적이고 추상적인 의미에서 뿐 아니라 실제로, 물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땅을 맑고 깨끗하게 가꾸고 지키는 일은 불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며, 진리에 입각한 행동입니다.

▲교수님께서 티베트 불교를 전공하는 학자이신 동시에 티베트 독립운동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티베트 문제를 어떻게

'환경운동' 진리에 입각한 행동 달라이 라마 방한 무산에 실망 티베트 의학 보급에 앞장설 것

하지 않습니다. 달라이 라마의 방한이 무산된 가장 큰 원인은 중국의 정치적 위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평화운동가이며 인권 운동가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세계 평화와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달라이 라마에 대한 배려가 조금은 있었어도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마음속에 늘 담고 생활하시는 붓다의 가르침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순간 순간에 최선을 다하며 살자, 죽음은 늘 내 가까이 있으며, 어느 순간에도 죽음이 임박할 수 있다는 점을 늘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새해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저에게 새해는, 한국



지난 12월 19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인도 문명에서의 종교' 주제의 학술회의에서 강연하는 쉘먼 교수.

'인도 문명에서의 종교' 국제회의

지난 12월 18~21일, 나흘간 인도 뉴델리의 '친마야 미션' 강당에서는 '인도 문명에서의 종교'를 주제로 한 국제회의가 개최되었다. 뉴델리의 '사회개발연구센터'와 '국제종교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국제회의에는 세계 20여개국으로부터 250명 이상의 학자들이 참석, 인도 문명권에서 발생했거나 인도 사회에 존재하는 각종 종교에 대한 연구 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나흘간 59개의 주제를

쉘먼 교수 — "불교는 인간 마음을 절대주의에서 벗어나게 하는 교육체계" 주장

놓고 패널 토의가 계속되었으며, 로버트 쉘먼 교수를 비롯하여 인류학자인 맥킨 매리엇 교수, 인도 라지 대학교 전 총장인 람 다얄 문다 박사, 타이 시투 립포체 등 많은 학자, 종교인들의 강연이 이어졌다.

12월 19일 오전에 있었던 강연에서 쉘먼 교수는 현대 사회에 만연해 있는 '절대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타인을 고려하지 않는 지나친 자기중심주의가 모든 사회 갈등의 근원

이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인과율을 바탕으로 자신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절대적 자아관'을 분쇄할 수 있는 '불교적 인식'에서 찾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불교는 '인간 마음을 절대주의에서 벗어나게 하는 과학적인 교육체계'라고 정의한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만이 다원성과 다양성이 담보되는 사회를 건설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구성원을 길러낼 수 있다고 현

대 사회에서의 불교의 의미를 부여했다. 50여분간 계속된 강연 내내 쉘먼 교수는 강력한 흡입력으로 청중들의 주의를 집중시켰고, 특유의 유머로 심어본의 폭소가 터져나왔다. 그야말로 넘치는 힘과 열정으로 가득한 강연이었다. 그의 강연을 들은 한 참가자는 '지금까지 들어본 것 중 가장 간결하고 확고한 방식으로 불교의 본질과 불교와 사회의 관계를 설명한 강연이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1가정 1컴퓨터 시대" "전 국민 네티즌 시대"

귀사의 홈페이지로 승부를 걸어 보세요

잘 꾸며진 홈페이지 하나만 있으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발전합니다. 지금껏 홈페이지제작을 망설여 오셨다면...
(주)아이코스솔루션과 상담하십시오.

- 컴퓨터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 컴퓨터를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 별도의 인건비를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 적은 투자로 엄청난 홍보가 시작됩니다.

고 품질의 홈페이지를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저희 제작진은 최저 60만원 부터 500만원까지 다양한 형태의 홈페이지를 귀사의 기획의도에 가장 알맞은 맞춤형 제작을 위해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최상의 서버 대역을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저희 아이코스솔루션은 서버 임대사와 제휴를 통해 웹 호스팅 기초비용을 월 5,500원(리눅스) 월 11,000원(NT)부터 제공해 드리며 할인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홍보 기획을 가장 저렴한 가격에!
사업홍보를 기획은 전문가에게 맡겨 제대로 기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코스솔루션은 최상의 기획전문가를 통해 페이지당 기본 50,000원 부터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티즌의 마음을 여는 홈페이지 기획, 제작 전문업체

㈜아이코스솔루션 http://www.eyecos.com
☎ 031)836-0992 FAX : 031)836-0993 E-Mail : eyecos@eyecos.com

육법등 (六法燈)

육법등등 2002-33243호

특징

- 1) 부처님께서 보리수아래서 성도 하신후 49년간 설법을 하셨기에 등을 49개 밝히니 그 모양이 마치 보리수 나뭇잎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음
- 2) 더러운 곳에서 물들지 않고 항상 깨끗함을 나타내는 연꽃모양을 만들어 등을 밝힘
- 3) 연등의 밝기를 자유로이 조절하여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음
- 4) 등의 재질을 신주 및 이크릴로 제작하여 변형 및 변색이 되지 않음

활용 범위

- 1) 법당내 상단 부처님전 조영 및 장엄등
- 2) 지정단 영가천도를 위한 49개 및 각종 제사단에 활용
- 3) 각단의 인등 및 장엄 등으로 활용 가능함
- 4) 예식장의 주례단 단상의 장엄 및 촛불 대용으로 활용가능
- 5) 장례 예식장의 영가단에 화환대신 장엄 가능함
- 6) 등 장엄이 필요한 각 단상 및 기타장소

(주)동원전기 주 소 :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설운리 290-1
전화 : 031)541-1417 / 팩스 : 031)541-1419 **충관 및 대리점 모집**